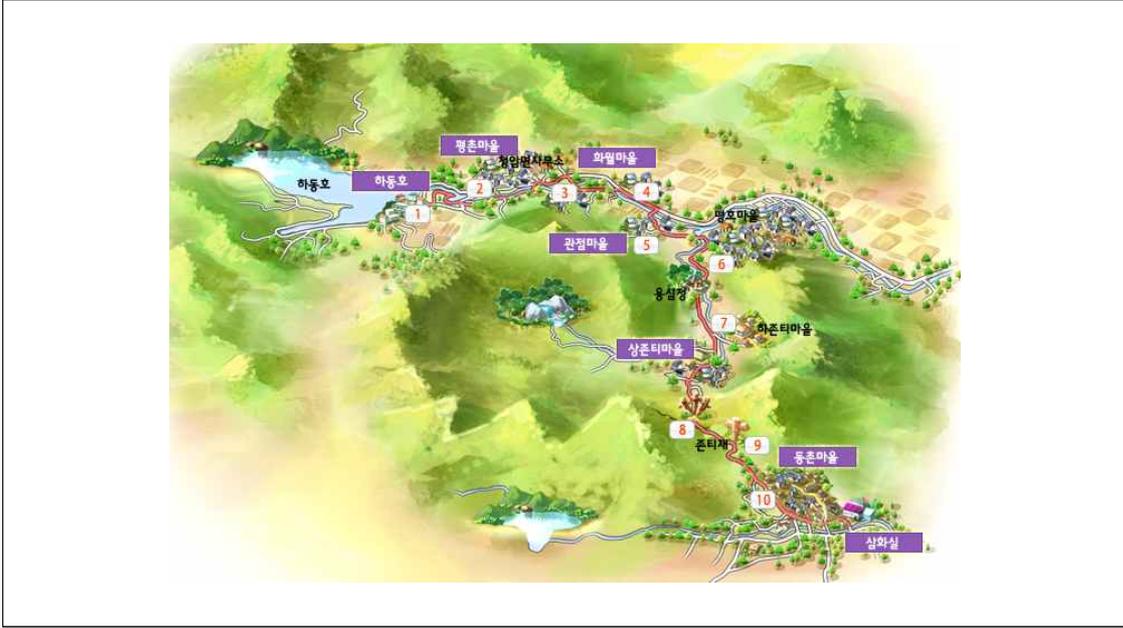


하동호-삼화실 구간

■ 코스 지도

기나긴 역사를 이어오며 선인들의 유지와 전설을 되새기는 길



■ 오디오 가이드 리스트

구분	지명	주요내용	비고
1	구간소개	하동호-삼화실 구간 소개	
2	평촌마을_1	효자 김난발(金爛發)과 백원정(百源亭) 유래	역사/민속자료
3	평촌마을_2	경천묘(敬天廟)와 금남사(錦南祀)	역사/민속자료
4	화월마을	화월마을 징검다리	생태
5	반월마을	반월마을유래-버드리(半月)	민속자료
6	관점마을	장구바위 이야기	민속자료
7	명사마을 초입	돌장승 이야기	민속자료
8	하존티마을	금포정 전설	생태/민속자료
9	대나무 숲	대숲 이야기	민속자료
10	존티재	조탑 이야기	생태/민속자료
11	동촌마을	삼화실 이야기	민속자료

1. 구간 소개

오늘 드디어 지리산 둘레길로 떠난다.

예전부터 가보고 싶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미루었고, 지리산이라는 위압감에 쉽게 엄두가 나지를 않았었다. 그러던 차에 며칠 전 지리산을 잘 아는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다

“다들 가는데 말고 좀 신선한곳 없을까?”

초보 주제에 나름 자존심을 부려본다.

잠시고민 하던 친구는 내게 하동의 ‘하동호-삼화실’ 구간을 추천해주었다.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지명. 잠깐 멍하게 있던 내게 웃으며 설명을 덧붙인다.

개통된 둘레길 중 가장 짧은 구간이고, 다른 구간에 비해 길도 험하지 않다고 한다. 나 같은 둘레길 초보자에게 적당한 코스라며 당장 떠나라고 재촉했다.

그 친구가 덧붙이기를, 하동호-삼화실 둘레길 구간은 청암천이 흐르는 길을 따라 걸다가 징검다리도 건너고, 청보리밭 사이의 마을들을 차례로 거치면서 포근한 인상의 마을 어른들도 만날 수 있다고 한다.

그 친구가 당부하기를, 어른들을 만나면 반갑게 먼저 인사드리고 붙임성 있게 말도 붙이면서 재미있는 옛날이야기도 많이 들으라고 한다. 그것이 지리산 둘레길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매력이라나. 더불어 하동은 벚꽃만큼이나 대나무 숲도 유명하니, 예전 CF의 한 장면처럼 핸드폰을 끄고 대나무 숲의 평화로움을 느껴보라고 덧붙인다.

마음은 벌써 하동에 있다.

2. 평촌마을_1

하동호의 제방 아래로 태양광 발전소의 판넬이 줄지어 서있다. 은빛으로 반짝이는 발전소의 시설들은 주위의 풍경과 그다지 어울려 보이지 않는데, 이러한 생경한 풍경이 이 일대에 자리 잡은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하동댐이 건설되기 이전에 이 일대에는 난천이라는 마을이 있었다. 난천마을은 조선 후기의 유명한 효자였던 김난발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던 유서 깊은 마을이었다고 한다.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효자 김난발은 어려서부터 천성이 착하여 마을 어른들의 칭찬이 자자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병을 얻어 위독해지자 자신의 허벅지를 베어 나온 피를 마시게 했다. 아버지가 죽은 후에는 그 묘 앞에 초막을 짓고 3년간 시묘를 살았는데, 그분의 효성에 감복한 호랑이가 밤마다 나타나 그를 지켜주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온다. 이후 효행이 널리 알려져 고을에서는 부역과 세금을 면제해주고, 임금님도 손수 쌀과 고기를 하사했다.

효자 김난발이 죽은 후 마을 사람들은 마을 입구에 그의 묘를 정하고 그 앞에 효자비와 정자를 세워 이를 ‘백원정(百源亭)’이라고 불렀다.

이 일대는 특히 경치가 아름다웠는데, 효자비의 비각 앞을 흐르는 청암천의 맑은 물 가운데는 두꺼비 바위를 비롯해 각양각색의 바위가 널리 깔려 있었고, 자생의 난초가 무성하여 선인들이 즐겼던 옛 정취를 쉽게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1980년대 하동댐의 건설이 시작된 후, 난천마을이 이주되면서 이 일대의 아름답던 자연 경관도 함께 사라지고 말았다. 길에서 만난 인근의 마을 어르신은 그 안타까움을 이렇게 토로하셨다.

“저 댐 하고부터 물이 후져버렸지. 여기 개울이 좋았었는데. 댐 하고나서 몇 부락이 떠났습니까? 그래가지고 부락이 많이 없어졌어요...”(안 그래도 8개 부락인가 금성인가로 갔다고) 그 래가꼬 부락이 많이 없어지고. 사람이 점점 없어지고.

“청암골 여기가 저 댐 때문에 망한 거라. 그래 그때 댐을 못하게 했어야 하는데. 부락이 많이 없어지고. 사람이 점점 없어지고.

난천마을과 백원정이 있던 자리에 이제는 태양광발전소의 판넬들만이 햇빛에 반짝일 뿐이다. 사라져버린 마을과 옛 풍경을 어렵듯이 상상만 해보고 이곳을 지나쳐야하는 게 조금은 안타깝기도 하다.

3. 평촌마을_2

평촌마을에 들어서면서 조금씩 풍경이 바뀐다. 청암천을 따라 걸던 제방길은 어느새 아스팔트 길로 바뀌고, 농협과 주유소 등의 커다란 건물들이 곳곳에 눈에 띈다. 평촌마을은 청암면의 면사무소를 비롯해 각종 편의시설이 자리하고 있는 면의 중심지이자, 하동읍으로 나가는 버스가 다니는 길목이기에 교통 또한 편리하다. 혹시 무언가 구입해야할 것이 있다면 이곳 평촌마을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다.

농협 앞엔 경천묘와 금남사로 가는 이정표가 보이는데, 시간이 허락한다면 잠시 들러도 괜찮을 것이다. 경천묘는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의 영정을 모신 곳이고, 금남사는 '목은 이색선생'을 비롯한 고려 후기 충신들의 영정과 위패들을 봉안하고 있는 사당이다. 두 곳 모두 경남의 지방문화재로 등재되어있는데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함께 위치해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경순왕'은 신라를 고려의 왕건에게 넘겨주며 스스로 투항을 선택해야 했던 비운의 인물이었다고, '이색 선생'역시 조국 고려가 조선으로 바뀌는 것을 아프게 지켜봐야만 했다. 이렇듯 우여곡절이 많았던 이들의 삶이 투영된 것일까. 경천묘와 금남사 역시도 원래는 중이리의 검남산 밑에 세워졌으나, 하동호 건설로 인해 이곳으로 옮겨올 수밖에 없었다.

평촌마을을 지나면 다시 청암천의 제방길을 걷게 된다.
또다시 풍경은 바뀌고 길은 계속 이어진다.

4. 화월마을

징검다리를 밟으며 청암천을 건넌다.

그 옛날 인근 마을의 젊은이들이 모여 하나하나 돌을 놓아 만들었을 법한 이 징검다리 역시도 지리산 둘레길의 일부이다. 여러 모양의 돌들이 제각기 늘어서있는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정겹다. 천천히 하나하나의 돌들을 밟으며 징검다리를 건넌다.

평촌교나 관점교 등의 다리가 생기기 이전엔 청암 사람들은 이러한 징검다리를 이용해 청암천을 오고 갔다. 농사일을 하러 가거나 장에 갈 때는 무거운 짐을 이고 조심스럽게 징검다리의 돌들을 밟으며 청암천을 건넌 것이다. 반월마을의 어르신은 이 일대에 있었던 징검다리를 이렇게 추억하셨다.

“저 위에도 있었고 (위에도) 위에도 시방도 건너다닌 데가 뒷마을에도 있어요. 징검다리가. 돌로 놓고 건너는. (지금도 있는 돌다리 그거 말씀하세요? 거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고. (혹시 저쪽 관점 넘는 데는) 거기도 있었지. 거기도 있었는데 다리가 됐고. 그 밑에도. 전엔 다 건넌지. 돌로 놓고. 비가 오면 못 건너가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 징검다리는 지리산 둘레길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옛 흔적 중의 하나가 아닐까 싶다.

이곳은 지금도 비가 많이 오면 강이 넘쳐서 강을 건너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럴 때 먼 도로를 따라 더 위쪽으로 올라가 그곳에 있는 다리를 이용해 청암천을 건너야 한다.

이미 징검다리를 건너 왔지만, 뒤돌아서서 오래도록 징검다리의 돌들을 하나하나 바라보게 된다.

5. 반월마을

청보리 밭이 펼쳐져있는 가운데에 아릅드리 벚나무 고목과 마을 정자가 서있다. 벚꽃이 만개하는 계절이라면 청록색 푸른 밭으로 떨어지는 벚꽃 잎의 장관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어쩌면 인파로 북적이는 십리 벚꽃길보다 하동 벚꽃의 매력을 더 낭만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이처럼 평화로운 풍경을 멀리서부터 바라보며 걸어와 마침내 마을 정자에 올라앉는다.

이곳 반월마을과 위쪽의 함화마을을 합하여 행정적으로 부르는 지명이 화월마을이다. 즉, 함화마을의 ‘화’자와 반월마을의 ‘월’자를 합하여 화월마을인 셈이다.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한자 이름 대신에, 함화마을을 함박골로, 반월마을은 버드리라는 순우리말의 정겨운 이름으로 부르신다.

‘버드리’란 버드나무를 뜻하는데, 옛날에 이 반월마을 일대에는 버드나무가 많았다고 한다. 특히 마을 앞 청암천 냇가엔 버드나무 숲이 울창했고, 명호마을로 가는 도로변에는 아릅드리 버드나무 가로수들이 즐비하게 서 있었다. 하지만 농사에 피해가 있다는 이유로 오래 전에 버드나무들을 모두 베어버렸고, 마을 이름도 뒷산이 반달처럼 생겼다고 해서 반월로 바꾸었다고 한다.

정자나무 옆 도로변엔 큰 절구바위 하나가 놓여 있는데, 마을 어르신들에 의하면 이 절구 바위는 옛날 청암천 가에 있었던 물레방아간에서 실제로 쓰던 바위를 이곳으로 옮겨온 것이라고 한다. 50년 전까지도 있었다고 하는 그 물레방아간은 아쉽게도 큰 홍수가 나서 유실되어버렸다.

비록 울창했던 버드나무 숲과 물레방아간은 이미 사라졌지만, 버드리라는 이름과 절구바위를 통해 희미하게나마 옛 풍경을 상상해볼 수가 있어 다행이다.

둘레길을 걷고 있으면 이처럼 길에 남아있는 다양한 옛 흔적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들을 통해 쉽게 잊혀 지고만 소중한 것들을 다시금 기억하게 한다.

둘레길을 걷는 의미 중의 하나 또한 이런 것이 아닐까?

6. 관점마을

마을 앞으로 청암천이 흐르고, 뒤편으로는 크고 작은 봉우리들이 마을을 감싸고 있다. 산과 물 사이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오래된 집들. 여느 지리산의 산촌마을처럼 평화로운 풍경이 정겹게 느껴진다. 마을 입구엔 장구바위라 부르는 커다란 바위가 있다. 길에서 만난 마을 어르신은 이 바위에 얽힌 다소 낯 뜨거운 이야기를 귀땀해 주시며 함박웃음을 짓는다.

경상도 사투리가 구수하셔서 한 번에 알아듣기는 힘들었으나 마을 어르신의 말씀을 정리해보자면 이렇다.

원래는 '장구바위'는 청암 천변에 있었는데 이 바위를 물 건너편의 반월마을에서 보면 꼭 남근처럼 보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반월마을의 남자들은 이 바위 때문에 마을 여자들이 자주 바람이 난다고 생각했고, 동네 청년들이 밤에 몰래 건너와 이 바위를 청암천 아래로 굴러 넘어뜨렸다. 그리고 한참 후인 새마을 운동 때 이 바위를 현재의 위치로 옮겨놓았고 이름도 '장구바위'라고 붙인 것이다.

다른 지방에서는 '다산'의 상징이라고 여겨지면 신성시 되는 바위가 이 곳 관점 마을에서는 수난을 당했던 셈이다.

관점마을엔 장구바위뿐만 아니라 그 밖의 다양한 바위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온다.

마을 안쪽 골짜기엔 옥녀가 거문고를 탔다는 탕건바위와 북처럼 둥글게 생긴 북바위의 이야기가 있고, 관점교 위쪽의 청암천에는 옛날에 배를 띄워 놓았다고 하는 배바위의 전설이 남아있다. 이들 이야기들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희미하게나마 옛사람들의 삶이 그려지는데, 그 삶 속엔 희노애락이 함께 뒤섞여있기에 때론 웃기도, 때론 안타까움에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한다.

이렇듯 돌레길에 숨어있는 옛사람들의 이야기는 그 어떤 드라마보다 재미있기에 마을 어르신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계속 귀를 기울이게 된다.

7. 명사마을 초입

명사마을 입구엔 길을 사이에 둔 채 마주보고 있는 2개의 석장승이 서있다. 각각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이라고 쓰여 있는 이 석장승들은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듯이 보인다. 특이하게도 이 석장승들은 전통혼례의 복장을 하고 서있는데, 마치 막 혼례를 시작하는 부부들이 하객을 맞이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다.

하동호-삼화실의 지리산 둘레길 구간에서는 이곳 명사마을에서 뿐만 아니라, 하존티 마을 입구와 존티재에서도 재미있게 생긴 장승들을 만날 수 있다. 장승은 하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농촌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지역에 따라 ‘장성, 벽수, 수살, 하르방’ 등 부르는 명칭과 그 생김새가 다양하다.

하지만 그 목적은 거의 비슷한데 장승이 하는 가장 주된 역할은 바로 마을을 지키는 것이다.

물론 현대의 기준에서 미신이라고 가볍게 치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옛날 어디에도 의지할 데가 없었던 고단한 서민들의 삶이 장승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특 튀어나온 큰 눈과 뭉툭하고 커다랗게 생긴 코, 그리고 이를 모두 드러낸 채 크게 벌어진 입까지, 언뜻 보면 괴기스럽게도 보이지만 그 속엔 익살과 해학 또한 섞여있다.

마을로 들어오는 나쁜 기운과 액운을 쫓아내려는 듯이 보이지만, 결코 위협적이거나 공격적이지 않다. 오히려 나쁜 기운을 어르고 달래서 보내려는 듯 친근히 느껴지기도 하다.

장승은 마을의 수호신 역할 뿐만 아니라 각 지역 간의 경계나 이정표 구실을 하기도 했다.

그래서 마을 입구에서 뿐만 아니라, 마을과 마을 사이의 고갯길이나 그 경계에서도 장승을 볼 수가 있다.

둘레길을 걷는 여행자들에게 장승은 길 위에서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친구처럼 느껴진다.

8. 하존티마을

멀리 보이는 산 아래로 다랭이 논이 줄지어 펼쳐지고, 그 사이에 조그마한 집들이 옹기종기 자리하고 있다. 들레길은 상존티마을로 이어지기에 하존티마을은 멀리서 보며 지나치게 된다. 원경으로 바라보는 하존티마을은 그래서인지 더욱 지리산이 품고 있는 마을답다.

명사마을 앞에 ‘돌장승’들이 서있는데 반해, 하존티마을의 입구엔 ‘목장승’들이 서있다. 유난히 큰 귀에, 입을 짝 벌리고 서있는 목장승의 표정은 절로 웃음을 자아낸다. 투박해서 더 정감 있는 목장승이 서있는 이 일대를 옛날 사람들은 금포정이라 불렀다고 한다. 이 금포정엔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목장승의 표정만큼이나 재미있다.

옛날에 이곳을 지나던 어떤 스님이 갑자기 배가 아파 숲 속에서 용변을 보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틈엔가 호랑이가 스님 옆에 나타났는데, 스님은 이를 보고 놀라지도 않고 호랑이를 잡아 한 쪽 팔에 낀 채 마저 용변을 다 보았다. 그리고는 호랑이를 번쩍 들어 나뭇가지에 걸어 놓고는 마을로 내려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중 : “내가 방금 저 고개 위에 호랑이를 잡아 매달아 놓았으니 필요하시면 가져가시오.”

주민 : “에이, 스님이 농담도 잘 하시네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다 하시고.”

중 : “정 못 믿겠으면 한 번 가보시오.”

스님은 횡 하니 마을을 떠났고,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며 이곳에 올라왔는데, 스님의 말대로 호랑이가 나뭇가지에 매달린 채 허우적대고 있던 것이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를 사로잡은 고개’라 하여 이곳을 금포정(擒捕亭)이라 불렀다고 한다.

과연 그 스님은 어떤분이셨을까?

물론 호랑이가 담배 피었다는 이야기만큼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마을 앞 나무위에서 허우적대고 있었을 호랑이를 생각하니 웃음이 절로 난다.

9. 대나무 숲

별안간 푸르른 대숲이 눈앞에 펼쳐진다.

하동의 둘레길을 걷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대나무 숲을 만나게 되지만, 이곳처럼 넓고 고즈넉한 대나무 숲을 만나는 건 흔치 않은 일이다. 빨려 들어가듯 대나무 숲길로 들어서자 다른 세계에 온 듯 새로운 느낌이 온몸을 감싼다. 마음 속 묵은 때까지 모두 씻겨나가듯 온몸이 상쾌해진다.

예로부터 대나무는 우리나라 민가에서 많이 재배했다.

특히 남쪽 지방에선, 병풍처럼 집을 둘러싼 대나무 숲을 쉽게 볼 수 있는데, 대나무는 뿌리와 줄기, 그리고 잎까지 버릴 것이 하나 없이 옛사람들의 삶에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었다.

먼저 대나무 뿌리는 우산대나 회초리를 만드는데 쓰이거나, 열을 내리는 약재로도 이용되었다.

대나무의 어린잎은 반찬으로 먹기도 했으며, 천식이나 불면증을 치료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었다. 또한 대나무 줄기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부채나 소쿠리 등의 죽세공품을 만들어 살림의 밑천으로 삼았고, 건강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는 죽순과 죽염, 대나무 수액 등은 요즘에 더 각광을 받는 식품이다.

이 대나무 숲 역시도 상존티 사람들의 삶에 유용하게 활용되었을 것이다. 특히 그 옛날 먹고 살기 힘들던 시절엔 상존티마을의 먹거리와 소득원이 되는 소중한 공간이었을 것이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대나무 숲이 이처럼 커졌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대나무꽃은 60년에서 120년 사이에 단 한 번 꽃을 피운다고 한다. 꽃이 진 후엔 곧바로 말라 죽기 시작하는데, 결국 대나무는 일생에 단 한 번 꽃을 피우기 위해 지니고 있던 영양분을 모두 소모하는 셈이다.

대나무꽃을 생각하며 문득 자문해본다. 과연 인생이라는 꽃을 피우기 위해 우리는 얼마만큼의 열정을 쏟아 붓고 있는 걸까. 대나무처럼 모든 걸 태우지는 못할지라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까. 가만히 눈을 감고 대숲의 소리를 들어본다.

10. 존티재

오르막을 올라 존티재에 오른다.

그리 높지도 험하지도 않은 고개이기에 존티재를 오르는 숲길은 상쾌하다. 청암과 삼화실을 잇는 이 고개는 특히 청암에 사는 아이들이 예전에 삼화초등학교를 다녔던 재라고 한다. 지금은 폐교가 되어 더 이상 아이들의 모습은 볼 수 없지만, 그 대신 장난스럽게 혀를 내밀고 서 있는 부부 목장승이 둘레길의 여행객을 반겨준다. 멀리 삼화실의 마을들을 바라보며 잠시 땀을 식혀본다.

목장승 옆엔 조그마한 돌무덤이 있는데, 이는 장승과 더불어 옛날부터 전해오는 민속신앙의 하나인 돌탑이다. 정확히 얘기하면 ‘서낭당 돌탑’으로 대개 반구형의 돌무더기를 쌓은 단순한 모양을 하고 있다. 주로 풍수지리적으로 마을의 허한 곳을 메우기 위해 세우지만, 마을을 위협하는 질병이나 나쁜 기운 등을 막기 위해 마을 입구나 고갯마루 등에 만들기도 한다.

존티재 위에 있는 이 돌탑은 마을의 재물이 밖으로 빠져 나가는 것을 막는 것과 더불어 적량면과 청암면의 경계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둘레길의 마을에서 만나왔던 ‘조탑’과 같은 역할을 이곳에서는 ‘돌탑’이 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 강원도나 전라도 지역에서는 마을 앞이나 고갯마루에서 돌탑이나 조탑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지만, 경상도 쪽에서는 흔히 볼 수가 없다.

이 존티재에 남아있는 돌탑 또한 흔치 않은 것이다.

겉으로 보기엔 길을 막고 서있는 하찮은 돌무더기에 불과해보이지만, 존티재의 돌탑은 둘레길이 품고 있는 소중한 문화재 중 하나인 셈이다.

그 옛날 돌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엮었을 옛사람들을 상상해본다.

존티재를 떠나며 돌탑 위에 돌 하나를 조용히 얹는다.

11. 동촌마을

사실 삼화실은 하나의 마을을 뜻하진 않는다. 삼화실 골짜기가 품고 있는 7개 마을을 통칭하는 이름이 바로 삼화실이다. 이 7개 마을 중 하나인 동촌마을은 청암면 쪽에서 존티재를 넘었을 때 삼화실의 첫 관문 역할을 하는 마을이다. 삼화실(三和實)의 실(實)은 예부터 골짜기(谷)의 의미로 쓰여 왔으며, 산골짜기의 작은 내(川)를 말하기도 한다.

삼화실이라는 이름엔 전해 내려오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세 가지 꽃이 피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즉, 이정(梨亭)마을의 배꽃, 중서(中西)마을의 매화(梅花), 도장골(道藏谷)마을의 복사꽃을 꼽아 삼화(三花)라고 부른다.

그 이름답게 봄이 되면 삼화실 골짜기는 하얀 배꽃과 매화꽃이 골골이 흐드러지게 피고, 간간히 발그레한 도화꽃으로 걷는 이들의 마음을 흔들어놓는다.

삼화실을 온전히 느끼기 위해서는 봄에 와야 하지 않을까 싶지만, 지리산 둘레길은 사계절 모두 다양한 자연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

언제 오더라도, 그리고 몇 번을 오더라도, 올 때마다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지리산 둘레길이다.